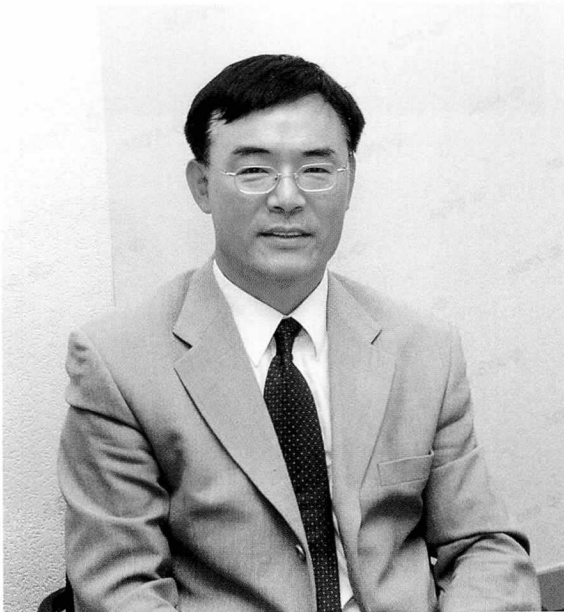


# 서구적이면서도 한국적인 회사 만들터



아그파코리아가 소리 없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정중동(靜中動)이라고나 할까.

지난 6월27일 아그파코리아는 서울 힐튼호텔에서 전무이사 이·취임식을 가졌다. 표면적으로는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그파의 변화는 이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뒤에는 새로 아그파코리아 그래픽사업부 대표로 취임한 김춘희 전무가 있었다.

김춘희 전무는 웹스트사에 입사하면서 인쇄와 관련을 맺었으며 지난 1996년 아그파와 웹스트사가 합병하면서 아그파코리아 일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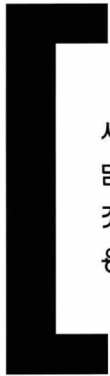
김 전무는 오랫동안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면서 서구적인

사고방식과 한국적인 사고방식의 차이를 보면서 양쪽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는 명제를 세웠고 이것이 김 전무의 목표가 되었다.

취임 후의 변화에 대해 “아그파코리아는 외국계 회사이지만 한국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변화를 시도해 오고 있으며 이번 그래픽사업부 대표로 취임하면서 서구적인 면과 한국적인 면을 접목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취임 후 서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고방식과 정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유지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직원들에게 그러한 면들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국내 실정에 맞게 한국인의 정서가 담겨 있는 인간적이며 정이 배어 있으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말로 표현하기는 쉽고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직원들이 잘 이해하고 또한 잘 따라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김 전무는 고객을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조직개편은 단순한 자리 이동이나 보기 좋게 허울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향상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비스강화와 조직 보강으로 고객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인해 자칫 내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팀웍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는데 아그파는 개인 경쟁이 아닌 팀 위주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서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개인적인 능력 경쟁으로 단기간에 생산성을 높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팀



김춘희 전무는 취임 후 서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고방식과 정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유지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직원들에게 그러한 면들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국내 실정에 맞게 한국인의 정서가 담겨 있는 인간적이며 정이 배어 있으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개인적인 능력 경쟁으로 단기간에 생산성을 높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있다.

워크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것도 선의의 경쟁으로.

디지털시대에 맞는 자기계발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김 전무는 “일일이 다 배워서 하려면 남들보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버린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개개인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적인 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 사업부의 대표로서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직원들의 능력 개발과 그 능력을 인정하고 키워주는 것은 개인과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아그파코리아의 밝은 미래를 점쳐볼 수 있다.

항간에는 필름출력기 사업을 철회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본사 측에서 필름출력기의 생산을 중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럽지역의 CTP 확산추세와 CTF의 시장 축소로 인해 채산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생산을 중단한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조치였으며 아직도 수요가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OEM 방식에 의한 생산으로 공급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필름사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한다면 당연히 공급해 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아그파는 프리프레스 토털솔루션 공급업체로서 장비와 소모품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프리프레스 분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으며 PS판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필름사업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서멀 CTP 판매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서멀 CTP 판매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멀 CTP 국내 보급이 타사에 비해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그파는 프리프레스 분야에 대한 기술은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출시되지 않았을 뿐 보유 기술은 상당히 많지만 기술의 완성도와 시장 상황을 충분히 판단한 후에 적당한 시기에 출시한다. 서멀 CTP도 기술력의 부재나 늦게 개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출시한 것이고 출시와 함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춘희 전무의 건강유지 비결은 주말의 휴식과 운동에 있다고 한다.

“나름대로는 철저히 주말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집에서 일거리를 집에까지 가지고 온다는 불평도 듣는다. 가능하다면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또한 운동과 조그마하게 주말농장에서 흙을 만지면서 자연과 함께 지내기도 한다”

나이가 들고 직위가 올라갈수록 소홀해지기 쉬운 건강문제를 자연과 함께 보낸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쉽게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앞으로의 소망은 “후회 없이 일하고 이것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 평가를 위해 하는 일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맺었다.

〈윤재호 부장〉